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구의
주교님들과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정교회의 모든 양떼를 향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세르기의 부활절 서신

거룩한 주교님들과, 존경하는 성직자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이 오래된 인사말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며, 진심으로 모든 분께 주의 부활 대축일을 축하합니다!

신자들은 매년 이 장엄한 날이 오기를 특별한 떨림으로 기다리고, 이날을 특별한 근면함으로 준비하며, 이날에 특별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점, 우리가 희망하듯이 더 많은 기쁨과 빛, 친절과 사랑이 있게 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의 구원의 길을 비춰 주시는 일종의 등대입니다.

이 축일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서 신자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외칠까요? 그 대답은 주님의 부활 후에는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입니다.(요한 16:22). 기쁨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쁨 없이는 결실을 맺도록 일하고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쁨 없이는 우리의 기도와 교회 성사들에의 참여가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기쁨 없이는 선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애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활이 우리 각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즉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권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친애하는 여러분, 이 찬란한 날에 여러분 모두가 말과 행동으로, 홀로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성당에서나 집에서나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의 활기(영적 활력), 기쁨과 평화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관구장주교
동남아시아 총대주교대리 세르기**

*2024 년 그리스도 부활 대축일
싱가포르*